

자매우호도시교류

중국 창사시 연수생 수료식



지난 9월 6일(금) 가고시마 시청에서 가고시마시와 우호도시인 중국 창사시 연수생 2명의 수료식이 열렸다. 이번 수료식에는 마쓰나가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3명과 창사시 연수생 2명이 참석했다. 수료식에서는 연수생의 연수보고서 제출 및 수료증서 수여, 기념품증정, 기념촬영이 있었다. 창사시의 연수생은 약 3개월 반 동안에 걸쳐 가고시마에서 체재하면서 가고시마 산업국에서 연수를 받았다.

가고시마시와 중국 창사시는 1982년 10월에 우호도시를 체결하였으며 올해로 37주년을 맞이하였다. 두 도시는 꾸준히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가고시마시는 1994년도부터 수도, 도시계획, 행정, 교육, 환경, 관광, 산업, 국제교류 분야의 창사시 연수생 총 46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가고시마시 소식

나리타공항 가고시마시 PR 프로모션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총 3일에 걸쳐 나리타공항 제1터미널 국제선 도착 플로어에서 가고시마시 PR 프로모션이 진행되었다. 가고시마시 PR부스가 설치된 장소는 국제선 도착 출구와 관광객 대상의 인포메이션 센터와도 가까운 곳으로, 홍보 활동으로는 최적의 장소였다. PR부스에는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가고시마시의 자연과 관광지, 특산품을 소개하는 영상이 재생되며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총 4개 언어로 적힌 가고시마시 관광 팸플릿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놓아 두었다.

이 날은 시 관계자 3명 외에도 영어, 한국어, 중국어 통역자가 배치되었다. 관광객들에게 관광 팸플릿과 가고시마 특산품의 시식을 권유할 경우에 보조 통역을 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다 쉽게 가고시마시를 소개하기 위함이다.

총 3일 동안 진행된 가운데 이틀째인 10월 2일 오후에는 약 300명의 관광객이 가고시마시 PR부스를 방문했다. 작년과 비교하여 PR부스에는 유럽권 관광객이 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 아시아권 관광객들이 많았다.



또한,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홍보 전략으로 가고시마시를 대표하는 인물인 사이고 다카모리 '세고동' 캐릭터를 이용한 것이다. 어린 연령층은 물론 성인도 캐릭터에 이끌려 PR부스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히 관광 팸플릿의 배부나 무료 시식을 권유하면서 관광객과 이야기 하는 것보다 캐릭터를 이용한 사진촬영을 유도함으로써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가고시마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었다. PR부스에 방문한 관광객들 중에는 가고시마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도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가고시마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만큼 관광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가고시마의 모습이

기대가 된다.

-가고시마시 특산품 및 관광 정보: <http://www.kagoshima-yokanavi.jp/korean/index.html>

가고시마시의 축제

덴몬칸 로쿠가츠도 유카타축제



지난 8월 3일, 4일에 걸쳐 가고시마시의 번화가인 덴몬칸 일대에서 덴몬칸 로쿠가츠도 유카타 축제가 열렸다. 주최는 덴몬칸 협의회, 덴몬칸 상점가진흥회의 단체들과 가고시마시 관광이벤트 창출지원사업에서 지원한다.



덴몬칸 로쿠가츠도 유카타 축제에서는 본인 이 지참한 유카타를 전문 교육자가 입혀주는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며(렌탈도 가능하나 비용발생) 덴몬칸 일대의 상점이나 포장마차등에유카타를 입고 갈 경우 무료로 얻을 수 있는 특전이 다양하므로 유카타를 착용하고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외에도 메인 스테이지의 공연이나 빙고대회, 체험활동등 볼거리가 많으니 8월에 가고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덴몬칸 로쿠가츠도 유카타 축제를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관련정보:<http://www.tenmonkan-yukatamatsuri.com/>

제14회 가고시마 아시아 청소년 예술제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가고시마 아시아 청소년 예술제는 오는 10월19일, 20일에 걸쳐서 개최된다. 매년 아시아 각국 및 지역의 예술단체 청소년들과 가고시마의 청소년들이 만나 한곳에 모여 교류하는 이벤트이다. 1일째 20일(토)에는 가고시마시 호잔홀(가고시마현 문화센터)에서 청소년 음악제가 개최되어 청소년들이 공연을 선보인다. 올해 해외단체는 중국 창사시,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타이, 미얀마에서 참가한다. 또한, 가고시마시의 대표팀과 가고시마시와 형제도시 협약 체결 50주년을 기념하여 야마가타현 쓰루오카시에서도 참가 할 예정이다.

2일째인 20일(일)에는 가고시마시 중앙공원과 덴몬칸 일대에서 아시안 페스타가 열린다. 해외단체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아시안 스테이지와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시안 체험부스, 아시아 각국의 요리를 맛 볼 수 있는 포장마차가 열려 가고시마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참가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20일(일)에는 노래자랑 '우타단'도 가고시마시 중앙공원 특설스테이지에서 열린다. '우타단' 이벤트는 국적에 상관없이 30세 이하 아마추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관련정보: <http://www.kiex.jp/asian/about-asian/>

긴코만소식

가고시마의 오하라 마쓰리



매년 11월 남규슈의 중심인 가고시마 덴몬칸 일대에서 오하라 마쓰리가 개최된다. 가고시마를 대표하는 민요 '오하라 부시'와 '가고시마 한야부시'에 맞춰 춤을 추며, 참가자 수는 2만 5천 명에 달한다. 일본의 전통 의상 유카타와 축제의상인 핫피를 입은 사람들이 추는 무용은 오하라 마쓰리에서 가장 큰 볼거리이다.

예로부터 가고시마는 축제가 많았으나 태평양 전쟁 때 공습으로 인해 많은 신사와 시설들이 파괴되었고 이러한 당시의 시대적 이유로 한동안 축제가 중단 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 1949년부터 가고시마시의 부흥에 노력을 기울이는 시민들 손에 의해 새롭게 시작한 것이 오하라 마쓰리라고 한다.

올해로 68회를 맞이하는 오하라 마쓰리는 다가오는 11월 2일과 3일 이틀간에 걸쳐서 개최된다. 매년마다 가고시마 시민과 관광객들이 기대하고 있는 오하라 마쓰리이지만, 올해는 가고시마 시제 130주년 기념의 해를 맞이하는 해로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되는 바이다.

- 관련정보 : <https://www.kagoshima-kankou.com/event/50229/>

요리로 배우는 한국문화 이해교실



지난 9월 15일 토요일 가고시마시 현민 교류센터에서 '요리로 배우는 한국문화 이해교실'이 열렸다. 강사는 가고시마시 한국인 국제교류원이 담당. 이날은 본격적인 요리교실이라기보다는 한국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기 위한 문화교류를 목표로 하는 시간이었다.

올해의 문화교류강좌에서 특별했던 점은, 일본인뿐만이 아닌 미얀마, 중국, 베트남 유학생도 참가했다는 것이다. 이 날은 우선 떡볶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요리과정을 소개한 후 본격적으로 40분간 떡볶이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9명의 참가자는 6 테이블로 각각 나뉘어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떡볶이를 만들었다. 강사가 전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레시피였고, 만드는 것은 각 참가자들이었기에 서로의 입맛에 맞는 개성적인 떡볶이가 완성되었다. 이날 교실에서는 '가게에서 먹는 떡볶이와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떡볶이를 만든 후에는 장소를 이동하여 '미니강좌: 떡볶이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떡볶이의 역사와 종류 등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좌를 들으면서 참가자들은 떡볶이와 한국의 전통음료인 '식혜'도 같이 마셔보는 체험을 했다. 생소한 맛에 다소 놀란 참가자도 있어 웃음을 자아냈다. 이번 요리로 배우는 한국문화 이해교실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일방적으로 강사만 주로 말을 하는 문화강좌와 다르게 참가자들 끼리, 강사와 참가자들간의 의사소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교류원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낌과 동시에 참가자들에게도異문화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문화 이해교실이 끝난 후 참가자 앙케이트에는 '참가자들 끼리의 의사소통이 매우 즐거웠으며, 직접 만들어 보면서 접하는 문화이해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내년에는 또 어떠한 이벤트로 시민들과의 교류가 이어질지 매우 기대되는 바이다.

문화교류이벤트 정보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재단>

-관련정보: <http://www.kiex.jp/category/cat-event/>

가고시마의 명물 소개

소멘나가시(そうめん流し)



일본에서 여름이라고 하면 '나가시 소멘'을 떠올린다. 반으로 쪼갠 대나무를 비스듬하게 놓아 위에서 부터 물과 소면을 넣어 흘러내리게 하여 먹는 음식이다. 재미와 맛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식문화이다. 그러나 일본내에서도 가고시마에서의 나가시 소멘은 소멘 나가시라고 하며, 도너츠 형태의 용기 안에 물이 흐르고 있고 그 곳에다가 소면을 넣어 먹는 방식이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왼손잡이도 쉽게 먹기 위한 용기도 따로 있다는 것.

가고시마에서 소멘나가시의 발상지라고 불리는 곳은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의 도센교 소멘나가시 (唐船峽そうめん流し) 이며 이부스키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소멘나가시의 발상지인 도센교(唐船峽)는 옛날에는 견당사 선박이 정박했던 협곡으로 이 협곡에서 샘솟는 물을 이용하여 소멘나가시를 지역의 사업으로서 발전 시킨 것이다. 이곳에서는 잉어와 송어가 헤엄치고 있다. 도센교의 샘솟는 물은 연간 13도 정도로 이 물을 이용해서 1년 내내 '소멘나가시'를 즐길 수 있다.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연간 30



만 명이 이곳을 찾고 있다.

교통편은 JR이부스키역에서 버스로 약 25분이 소요되며, 자동차로는 가고시마 시내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

-관련정보:<https://www.kagoshima-kankou.com/guide/10692/>